

2023

새해 이렇게

김한중 장성군수

“장성의 미래 먹거리 만들 ‘기회의 해’로 삼겠다”



필암서원·맛거리 조성·축령산 휴양 인프라 등 ‘관광산업’ 새 판 소상공인 지원·2040 농업인 육성·기후변화 대응·복지 확대 등

“계묘년 새해는 눈앞에 놓인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장성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기회의 해로 삼겠습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지난 반년의 여정 속에서 군민과 의회,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새해 장성의 미래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가장 먼저 장성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될 ‘관광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각오이다.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는 관광 산업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우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 음식, 스포츠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장성의 매력으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 ‘필암서원’은 문불여장성(文不 如長城·학문에 있어 장성만한 곳이 없다)의 역사를 잇는 선비문화 육성과 정령 문화를 상징하는 소나무 가로수길을 조성해 장성 ‘문화 관광’에 매력을 더한다.

특히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선정된 장성군은 총 100억원의 사업비로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성관 리모델링을 비롯해 ▲선비문화 디지털 전시공간 조성 ▲전통정원 정비 ▲선비문화 플랫폼 구축 등을 시행 중이다.

그는 장성과 남도 음식을 품은 ‘5대 맛거리 조성’을 비롯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를 통해 음식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과 ‘축령산 산림 휴양 인프라 구축’으로 코로나19와 힘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치유 관광’도 본격 활성화한다.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과 ‘2025년 도민체전 유치’를 통해 ‘스포츠 관광’의 새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장성 사랑 상품권 증액 발행’을 비롯한 ‘황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주민 생활 편의 향상 도모를 위해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노후정수장 정비,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착수한다.

지난 연말 정부예산 25억원을 확보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과 ‘빛그린산단 배후 지방산업단지 신규 개발’, ‘덕성 행복마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한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은 계획대로 올 5월에 첫 삽을 뜬다.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 소규모 아열대 과

수 생산시설 지원,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지역 특화 작목 육성, 2040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등 장성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미래 농업 정책도 추진한다. 농업인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힘을 쏟는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비 감사로 줄어든 ‘노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바우처’, 효도 연금이라 불리는 ‘효도권’도 지급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가족센터 건립, 영아수당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등 복잡·다양해진 가족 유형에 맞춘 다양한 맞춤형 가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민의 성공은 이미 시작됐다. 우리가 해 왔고, 앞으로 이뤄갈 성공의 작은 줄기들을 모아 큰 성공의 바다를 만드시 이뤄내자”라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명품 교육도시’ 공약 사업 본격 추진

초교 입학 지원금...중1·학교밖 청소년 ‘배움카드’ 10만원씩 지급

나주시가 학생·학부모가 행복하고 각계각층 시민에게 학습권을 보장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민선 8기 신규 교육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신규 공약사업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1학년 학생 가정에 입학 지원금 10만원(나주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입학 지원금은 임신·출산 지원 사업 확대와 연계된 교육복지 시책으로 취학생활에 첫 발걸음을 내딛은 아동들을 축하하고 입학 초기 소요되는 교육경비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모든 가정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 아동은 총 1066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1억1000만원

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원금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시는 중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과 만13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진로·문화·예술분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 상당에 ‘꿈이름 배움카드’를 발급한다.

특히 꿈이름 배움카드는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중위소득 70%이하 등 가정에만 지원됐던 기존 국가 교육 바우처 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소득 구분 없이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카드 사용처를 박물관·전시관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나주만의 특화 체험처를 발굴하고 학생들의 애호심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는 사업비 1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신규 편성해 중학교에 입학한 1018명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100세 시대를 맞은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선 8기 신규 사업인 ‘나주애 배움 바우처’도 기대를 모은다.

시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국가평생학습바우처 시스템 등록 9개 기관 60여개 강좌를 민선 8기 출범 후 시민의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권 향유를 위해 200여개 강좌로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 등록을 지원했다.

시는 나주애 배움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설명회와 선불카드, 모바일 지역화폐와의 연동을 위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모든 학생과 시민이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활동 기회를 보장받는 보편적 교육복지제도 안착에 있어 나주가 선도적 역할을 다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치매로부터 안전한 강진” 강진군치매안심센터 환자 관리·조기검진 등

강진군 치매안심센터가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자 관리부터 지역사회 인식 개선까지 전 범위에 이르는 사업을 역점 추진한다

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등록 관리 ▲치매 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지원 ▲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지급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예방교실 및 치매환자 가족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치매안심센터(061-430-5294),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의 한 레드향 농가에서 레드향 수확이 한창이다.

장흥 농가 ‘효자’ 레드향 수확 한창

높은 일조량·해풍 영향 당도 높아 군, 기후변화 대체작목 중점 육성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걸로만 알려진 만감류 작물 레드향이 장흥군 농가 소득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장흥군에서 생산되는 레드향은 상큼한 향과 달콤한 맛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레드향은 다른 원예작목과 비교해 수확 할 때 손이 덜 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흥에서 생산되는 레드향은 높은 일조량과 따뜻한 해풍의 영향으로 당도가 뛰어난 것이 특징

이다. 레드향의 주 수확기는 12월~2월로, 일반 귤에 비해 특유의 맛과 향기가 있고 저장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다.

장흥 레드향 향그레의 당도는 평균 15브릭스로 다른 만감류와 비교하여 단맛이 강한 것은 물론, 과즙이 풍부하고 식감이 뛰어나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기존 시설원예 작목의 경쟁력이 낮아져 새로운 작목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장흥군은 기후변화 대체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ky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